극장서 만난 템플스테이…“특별한 하루 됐어요”

문화사업단 · CGV동대문 협업
‘고요극장’ 템플스테이 선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과
차담 · 음식, 소리선명상 체험
참가자들 “접근성 좋아” 호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8일 CGV동대문에서 진행된 ‘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고요극장’에서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각 스님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주위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연꽃은 진흙밭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묻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잖아요. 하지만 연꽃은 그것을 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죠.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양분으로 삼아 수행하세요.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껍질을 깨고 자유로워져야 돼요.”(진각 스님)

영화가 상영돼야 할 주말 도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모인 청중들이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의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고, 스님들은 차분하게 듣고 조언했다. 마치 템플스테이를 하듯이.

10월 18일 오후 극장에 이뤄진 행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CGV동대문이 협업해 진행한 ‘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고요극장’의 한 장면이다.

‘고요극장’은 깊은 산속 사찰이 아닌 도심 한복판 극장에서 열리는 이색 템플스테이로, 팝콘 대신 따뜻한 뽕잎차와 다식(호두·금귤·올리브 정과, 송화 다식)을 즐기며 스님과 함께 토크콘서트, 음식명상, 소리선명상 등 다양한 체험을 나누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템플스테이 다회 참가자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부안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각 스님과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선일 스님이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특별하고 신선한 하루를 선사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선일 스님이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소리선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님들의 지도로 명상을 체험하는 사람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스님들과의 토크콘서트. 대중들은 스님의 출가 계기부터 인생 상담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았고, 스님들은 친절한 답변과 맞춤형 조언을 전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연에 선일 스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다.

“제가 여러분께 기념품으로 다식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받을 겁니다. 반대로 먹다 남은 쓰레기와 여기 떨어진 머리카락을 기념품으로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스님이 주신 거야’하고 몇날 며칠을 꺼내 보겠어요? 굳이 쓰레기를 품고 꺼내 보며 괴롭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연은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밀어낸다고 밀어내지지 않는다”면서 “과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니면서 괴로워 말고 스스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잊지 말라. 좋은 인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응원했다.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진각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스님들은 사찰 이동이 잦은 편인데 그때마다 저는 방을 잘 정리하고 가려 합니다. 정리를 잘해 놓고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을 찍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가져갈까, 버릴까를 고민하는데 인생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이번 생에 무엇을 남기고, 내생에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누구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선일 스님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는 훈련을 하라”고 제언하며 “뭘 하려 하지 말고 호흡하며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 봐라. 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과 수행에 대해 진각 스님은 “바른 생각과 정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수행공동체나 센터를 가서 선생님을 만들어야 한다. 가서 습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 출가도 추천한다. 1년만이라도 해보라”며 “생각만으로 안 된다. 몸으로 움직이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각 스님은 ‘음식명상’을 진행하며 “차를 마시는 행위 하나에도 수행의 모든 길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뽕잎차와 다식을 음미하며, 맛과 향, 온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리선명상’은 선일 스님의 지도로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명상을 진행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과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과 마주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자녀와 함께 참가한 이승훈(56, 서울 화곡동) 씨는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됐는데 도심 극장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멀리 나갈 수가 없어 사찰 템플스테이는 어려웠는데 도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반가웠다”고 밝혔다.

고요극장을 찾은 박사 칼럼니스트는 “종교가 불교가 아닌 친구와 동행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며 “템플스테이를 작정하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반과 함께 찾은 청년불자들에게도 ‘고요극장’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봉은사 청년회 회원인 정노겸(33, 수불) 씨는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도심을 벗어나야 하는데 스님들께서 직접 도심 속으로 오셔서 싱잉볼 체험도 하고 명상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셔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류경훈(33, 진각) 씨는 “템플스테이에 가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심 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마음챙김도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K-명상, 정혜결사 정신으로 되돌아봐야”

김방룡 교수, 10월 17일 보조사상硏 학술대회서 밝혀

지눌의 ‘정혜결사’ 구현 고찰하며
조계종 ‘선명상’ 비판적 문제 제기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선명상’을 보조 국사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 정신을 통해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10월 17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이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개최한 제32차 국내학술대회에서 ‘보조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발표하고 지눌 스님이 고려 불교를 혁신하기 위한 주창한 ‘정혜결사’ 의미를 짚고,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구현할 지를 살폈다.

김 교수는 정혜결사 이념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는 ‘수심불교(修心佛教)’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 △선(禪)과 교(教)를 아우르는 ‘선교융회’ △자신의 수행이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도록 돕는 ‘이타자비’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혜결사는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과 혜를 닦으면서도 노동과 운력으로 교단을 유지하며 정법불교로 돌아가려는 대중적 불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혜결사’의 현대적 계승과 관련해 김 교수는 최근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K-명상’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예로 들며 비판적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김방룡 교수.

고찰했다.

김 교수는 “‘선명상’, ‘K-명상’이라는 말은 서구의 시선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용어”라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은 ‘땅에서 넘어졌는데 강물이나 허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K-명상’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한국선’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재가에 의해 주도되고 명상이 선수행을 대체해, 불교 종단이 명상이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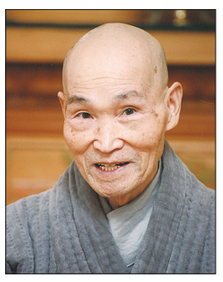
“지눌의 정혜결사는 회광반조해 수심의 길을 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논평 질의응답에서도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 등 선의 정신이 ‘선명상’, ‘K-명상’에 뭉뚱그려 이야기되고 있다. 당장 ‘K-명상’ 등이 한국불교를 활성화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작 외국인들이 한국의 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제가 가진 우려”라고 재차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청화 스님 ‘염불선’ 수행법·활용 방안 논한다

청화사상연구회 제13차 세미나
11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염불선의 이론과 수행체계를 세우고 대중화에 앞장섰던 선지식 무주당 청화(1923~2003·사진) 대종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11월 2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염불선의 실천수행과 교화’를 주제로 제1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벽산 무주회(문장 일묵 용타 스님)와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염불선의 수행법에 대한 연구와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건립된 청화기념관과 염불선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 두 편이 발표된다.

전 한국정토학회장 법상 스님은 ‘벽산당 금타 대존사의 염불선과 수행법’을 통해 금타 대존사(1898~1948)의 수행은 현교(顯教)와 밀교(密教)가 융합된 형태를 보였음을 살피고 현밀융합(顯密融合)의 불타관과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조명한다. 이를 통해 〈금강심론〉 등의 전거를 검토해 현밀융합적 염불수행법이 정통불법의 요체에 부합함을 밝힌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 교화를 위한 청화기념관 활용방안’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요 무형유산인 염불선의 가치를 조명·확산하고 청화기념관과 연계해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염불선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시간의 축으로 ‘만일염불선결사’를, 공간의 축으로 (가칭)‘염불선 순례길’의 개발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광륜사 교무국장 보원 스님,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무안 혜운사 주지 정헌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 패널이 참여해 진행된다.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은 “학술세미나를 준비해 준 청화사상연구회와 전문 학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청화 스님이 전하신 염불선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논의·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흥선 스님, 국중박에 탁본 등 1143점 기증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등
금석문 가치 높은 탁본들 기증



조계종 탁본 명장 흥선 스님〈사진〉이 전국 각지를 돌며 채탁한 금석문 탁본(拓本)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체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흥선 스님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채탁한 금석문 탁본 등 총 558건 1143점의 소장품을 수증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는 탁본 기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탁본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문양 등을 먹을 이용해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금석학과 탁본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었고, ‘법첩(法帖)’이라 부르며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과 김천 직지사 주지 등을 역임한 흥선 스님은 40여 년간 전국의 주요 금석문을 채탁해 온 자타공인 최고 한국 탁본 전문가로, 2024년에 조계종의 첫 탁본 분야 명장으로 지정됐다.

특히 2013년부터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국 주요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책임연구원을 맡아 전국의 고승 비문, 문묘 등 주요 금석문들을 탁본하고 있다.

이번에 수증한 탁본은 스님이 직접 채탁하거나 감독해 제작한 것으로, 삼국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의 금석문을 폭넓게 망라하는 자료다. 또 불교사적 성격의 탑비·사적비부터 역사 기록물인 승전비·묘도문자에 이르기까지 주제면에서 다양하고 전국 각지에서 채탁돼 지역적 분포도 넓다.

이번에 수증한 탁본 중에는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를 비롯해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등 보물로 지정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금석문의 탁본들이 포함됐다. 김정희, 한호, 이삼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의 글자를 새긴 예, 미불과 구양순 등 중국 서예가의 글자를 집자해 새긴 예도 있어 신뢰도 높은 서예사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기증을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학술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금석문 본래의 조형미와 탁본 예술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됐다”면서 “수증한 탁본을 역사학, 서예사, 미술사 등 학술 연구뿐 아니라 전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